

지역구 253석·비례 47석...광주·전남 18석 모두 살렸다

■여야 4+1, 선거법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광주·전남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선거구 통합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행보를 보여왔던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입후보자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4+1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의석수 측면에선 제자리 걸음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큰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4석이 줄어들 우려가 컸던 광주·전남은 기존의 지역구 의석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합합 대상이었다.

광주의 경우 동남구(14만4988명·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14만9493명·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합합 대상이었다. 전남은 여수시(13만5150명·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14만7964명·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합합 지역구였다.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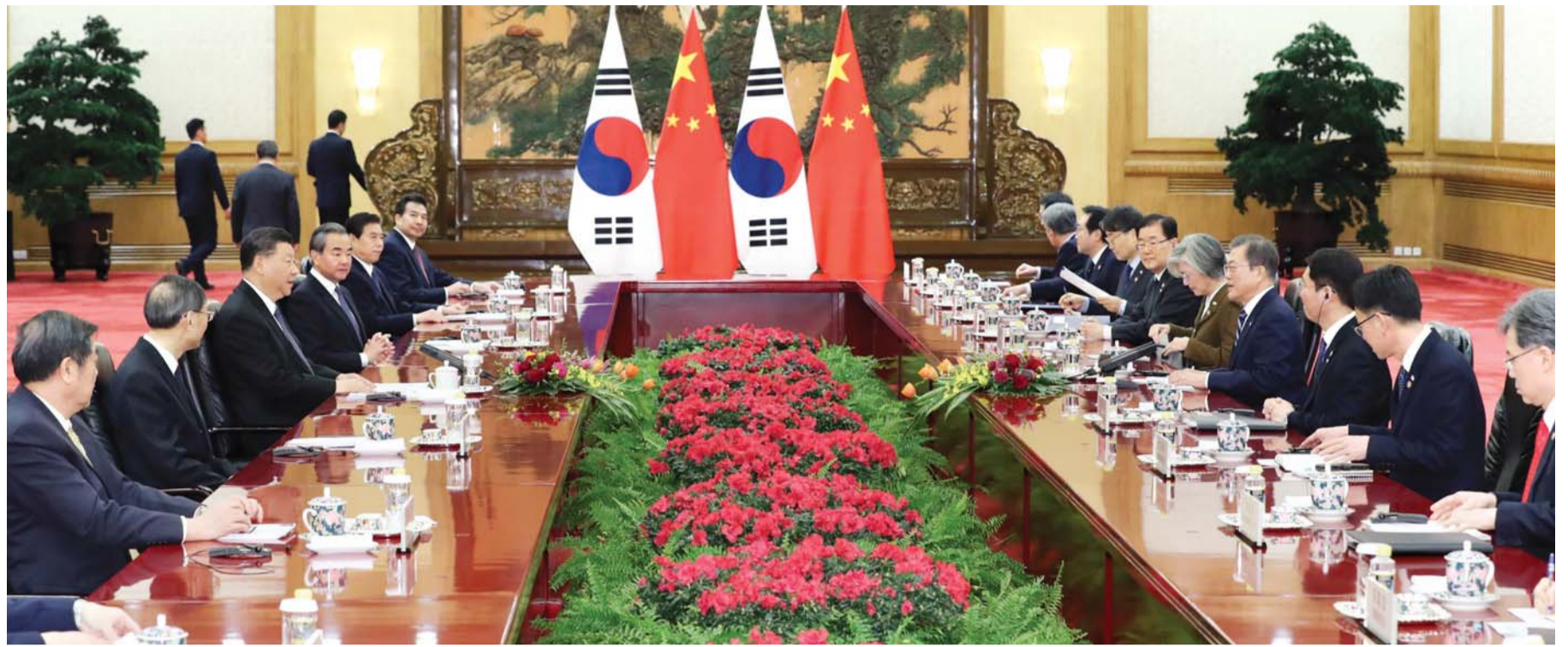
막판 도입 논란 석패율제 제외
연동형 비례제 줄기 지켜내며
여야4+1, 실익 나눠가진 협상

또 전북은 익산시(13만7710명·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무소속 이호용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대안신당 김중희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었다.

선거법 수정안 최종 합의에 따른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 안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 야당을 설득했다.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도 민주당의 성과다. 지역구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원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아깝게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중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서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구 개정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추진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었다. 최종 안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文대통령 “한중은 공동운명체”...시진핑 “손잡으면 많은 일 가능”

6개월만에 만나 115분 대화 문 대통령 맹자 인용 덕담

반년 만에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다시금 우의를 확인하면서 한중 간 협력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27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며, 두 정상 간의 6번째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에 올 때마다 상진백해와 같은 중국의 발

전에 놀란다”는 말과 함께 시 주석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과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 역시 문 대통령이 양국 공동 번영의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며 “나는 문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건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어린 말”이라고 했고 청와대 고위직 대변인이 비공개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였다고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강화됐고,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이낙연 종로 배턴터치’ 질문에 “지금만 하늘만 알 것”

“청문회 최선 성실히 임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내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만 하늘만 알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육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석이 되는 종로구와 관련해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가. 이낙연 총리의 배턴터치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그의 지역구인 종로구는 공석이 된다.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해 종로로 출마한다면 전·현직 총리의 ‘종로 배턴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늘만 알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발언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망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죠”라며 “(인사청문회는) 정치인이 보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잘못하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해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수하면 처음보다 잘해야겠죠?”라고도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일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만큼 잘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자는 ‘이 총리는 ‘안전총리’를 강조했는데 어떤 총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경제총리·통합총리”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오늘 한일 정상회담...양국 외교장관 의제 최종 조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일련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전에 별도로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통상 외교장관이 정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잡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만큼 난제가 많은 한일관계의 특성

상 마지막까지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상회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교부 장관끼리 먼저 만나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청두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겨울여행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여행

여행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동남아/대만/남태평양

중국

<p>나트랑 #베트남 남부 #최고의 휴양지</p> <p>Savepack! AVPF22_1 899,000원~ 수 3박4일 3박4일(19.12.28-20.2.22) *비행시간 포함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다낭</p> <p>Savepack! AVPF13_0 다낭·호이안 4일 793,000원~ 매일온라인 3박4일 *제외 날짜 있음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대만</p> <p>하나팩 ATFF01_2 [온천] 대만·지우펀·스펀 4일 811,000원~ 화.수.금.토 3박4일 *일정별 상이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보라카이</p> <p>Savepack! APPF10_1 보라카이/치앙라이 5일, 6일 649,000원~ 목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캄보디아-양코르왓 #유네스코 지정 #신비의 경연</p> <p>Savepack! ARPF01_1 599,000원~ 수 3박4일 3박4일(20.1.11-20.2.8)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코타키나발루</p> <p>Savepack! AMFF03_3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95,000원~ 목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하노이</p> <p>하나팩 AVFF10_A 하노이/하롱베이 5일, 6일 1,050,000원~ 목 3박4일 일 4박5일(20.2.13-20.2.27)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치앙마이</p> <p>하나팩 AOPF01_A 치앙마이/치앙라이 5일, 6일 1,150,000원~ 목 3박4일 일 4박5일(20.2.13-20.2.27)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하이난</p> <p>Savepack! CIPF83_N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500,000원~ 수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p>	<p>장가계</p> <p>Savepack! CIPF01_1/2 장가계 4일, 5일 599,000원~ 수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상해</p> <p>하나팩 CCPF01_2 상해·주자각 4일, 5일 329,000원~ 수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상해/황산</p> <p>하나팩 CCPF06_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박4일 일 4박5일 현지차량 > 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준비비용,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차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개별여행비용은 미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에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가사경비] 가이드가사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에 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미청약에 의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비만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호주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박호텔 이상 2인1실/교동편 항공/버스/택시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문의전화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시간 09:00~22:00

Fair Price 안심결제 캠페인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